

‘송년의 밤’, 12월16일(수) 마포 ‘가든호텔’ 에서

올해 ‘송년의 밤’ 행사는 12월16일(수) 저녁 6시에 서울 마포 ‘가든호텔’ 2층 ‘무궁화홀’에서 열린다. 가든호텔은 지난해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새로

운 모습으로 사우회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작년에는 MBC ‘상암동신사옥 견학’으로 대체돼 송년 모임이 없었기 때문인지 올해 송년모임에 관한 문의가 사무

처로 쇄도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사우회에 가입한 61명과 올해 가입한 58명 등 119명이 모두 참석할 경우, 7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대 인원이 참

석하는 송년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송년의 밤’에도 행운권 추첨 등 회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MBC 경영인프라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골프대회, 차종식(기술) 회원 우승



9월16일 에머슨 골프클럽에서 열린 가을철 골프대회에서 차종식 회원이 87타(신페리얼 환산 70.2)를 쳐 우승을 차

지했으며 조승필(관리) 회원은 84타(신페리얼 환산 70.8)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메달리스트는 76타를 친 정경석(관리) 회원이며 이동한(관리) 회원은 홀컵에 29Cm까지 붙여 근접상을 받았다. 행운상은 최홍림(기술) 회원, 사우회에 가입하고 첫 출전한 김정로(편제) 회원에게는 감투상이 주어졌다.

낚시대회, 김영균(관리) 회원 1등

10월 8일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김포 누산수로에서 거행된 낚시대회에서 김영균 회원이 21Cm짜리 붕어를 잡아 처음으로 1등을 차지했다. 정인영(편제) 회원이 2등(붕어 19Cm), 이한익(기술) 회원이 3등(붕어 16Cm)을 차지했

고 김삼량(관리) 회원은 18.5Cm짜리 망둥어를 잡아 행운상을 차지했다. 畫家인 이승문 낚시클럽 회장은 낚시대회 때마다 점심을 협찬하는 흥국화재보험 측에 감사를 표하고 이제훈 주임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했다.

바둑대회, 정태식-이창호 회원 우승



가을철 바둑대회는 정태식-이창호 회원이 우승을 차지해 기술부분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정태식(기술) 회원은 A

조 결승전에서 김은식(업무) 회원을 물리치고 첫 우승을 차지했으며, 기술부문 회원들끼리 맞붙은 B조 결승에서는 접전 끝에 이창호 회원이 최명구 회원을 4집 차로 이겨 2010년 봄철 대회에 이어 2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바둑대회에는 A조(5급 이상)에 17명, B조(6급 이하)에 14명 등 31명이 출전했다.

등산대회, 북한산 둘레길 가을 정취 만끽



등산대회는 10월 21일, 북한산 둘레길 19구간 (방학동길)과 20구간 (왕실묘역길)에서 실시됐다. 이 구간은 2013년 봄철 등산대회 때 한 번 걸어본 구간으로, 참석한 78명 전원이 안전하게 산행을 마쳤다. 오랜만에 함께 모인 회원

들은 짙어가는 단풍 속에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한 듯 이현보(85세), 김세중(84세), 박연식-안영순-이종구-이한익 (이상 81세) 회원 등 80대 회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으나 등산대회 때마다 앞장서시던 노서을(기술) 고문은 이번 산행을 기권하고 식당에서 후배들을 격려했다. 강신천(관리), 김경일(관리) 회원이 처음으로 참가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하반기 문화탐방은 강화 교동면에서



하반기 문화탐방이 10월16일 강화 교동면에서 실시됐다. 교동면은 올 상반기 문화탐방을 한 곳이지만, 거리가 가깝고 음식 맛이 뛰어난 탓이었는지 다시 한 번 가보자는 의견이 많아 두 번째로 찾아갔다. 아침 8:00 사우회를 출발한 버스는 9:30 즈음 강화에 도착했고 월선포 '강화나들길 9코스'에서 일정이 시작됐다. 화개산 등산을 비롯해 오전에 일행이 걸은 거리는 5Km, '대흥호 별해별식 식당'에서 꽃게찜으로 포식한 후에는 바다를 끼고 3.5Km의 나들길을 걷기 시작했다. 태풍에 부서진 채 뼈대만 남아 있는 '교동읍성'을 통과하자 윈

쪽으로는 아직도 물이 찰랑거리는 수로와 가을걷이를 끝낸 비어 있는 논들이 평화로웠고, 오른쪽으로는 고만 고만한 섬들과 파도마저 잠잠한 바다가 눈길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평균 나이 70대 중반의 회원들이 이날 걸은 거리와 시간은 8.5Km에 3시간 30분 정도. 모두들 마음과 몸이 10년은 젊어졌을 것이라면 사무처 진행 요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문화탐방에는 문기회에서 7명, 기술동우회에서 14명, 문경회에서 7명, 관리부에서 3명, 편성제작에서 2명, 진행요원 3명 등 36명이 참석했다.

제3회 3사 사우회 바둑대회, KBS 유병철 회원 2연패



제3회 MBC-KBS-SBS사우회 친선 바둑대회 (주관 SBS사우회)가 10월 12일 여의도 송천기원에서 열려 KBS 유병철 회원이 거꾸 우승을 차지했다.

아마 5단 이상 고수들이 격돌한 최고위전에서 KBS 유병철 회원은 같은 KBS의 최병화 회원을 물리치고 2회 대회에 이어 연속 우승을 차지해 최강의 실력을 과시했다.

유병철-최병화組는 2회 대회 결승전에서도 자웅을 겨룬바 있어 당분간은 KBS 바둑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급 이상 실력자들이 겨룬 대표전에서는 SBS 회원들끼리 결승전에 진출해 윤충의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2회 대회 우승자였던 SBS 김수웅 회장은 결승전에 진출한 뒤 후배인 윤충의 회원에게 우승을 양보했다.

최고위전에 출전한 MBC사우회 한박무-이유호 선수는 예선에서 탈락했으며 대표전에 출전한 김현철-이종성-임준석-최동윤 선수는 1,2위로 예선을 통과하고 8강전에 진출해 기대를 갖게 했으나 8강전(준결승)에서 모두 고배를 들었다.

경·조사

■ 팔순 ■

김병택(편제)12/13 박용찬(미주)12/16 엄재선(미주)12/28 鄭鎮哲(보도)12/31
이 증(보도)01/06 강대형(기술)01/15

■ 고회 ■

황길수(보도)12/21 김철호(보도)12/23 이두표(업무)12/29 윤병건(보도)01/13
이연구(업무)01/18 심우승(편제)01/22 한숙동(편제)01/23 김수량(기술)01/28
박건칠(기술)01/30

■ 회갑 ■

金泳日(보도)12/05 윤주혁(관리)12/10 강신천(관리)12/14 이석균(관리)12/15
정 준(관리)12/20 선병조(편제)12/24 안성일(보도)12/25 고대석(보도)01/01
金鐘國(보도)01/05 이명숙(편제)01/08 김애정(관리)01/10

■ 결혼 ■

지덕환(관리)차녀10/9 이종모(업무)장남10/11 심규성(관리)차녀10/23
김광웅(편제)장남10/24 문진영(보도)아들11/1 이승재(기술)장남11/1
전우성(기술)아들11/7 한승영(기술)장남11/14 황혁정(관리)장남11/14
김세영(편제)장남11/15 차경호(보도)장녀11/15 전병욱(관리)장녀11/21
정경석(관리)차녀11/21 임영택(관리)차남12/5

■ 부음 ■

丁炳壽(기술)모친상9/10 김은혜(관리)모친상9/13 이희재(편제)모친상9/17
임광혁(편제)부인상9/22 정봉일(대구)모친상10/2 박한성(관리)모친상10/7
조병락(기술)장인상10/24 황인뢰(편제)부친상10/24 박승기(관리)모친상10/28
이연구(업무)부인상10/29 장한진(관리)장인상11/2 박보은(업무)시모상11/9
이에나(관리)부친상11/10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金起華(관리) 010-9105-2992 양천구 목2동 536-7, 202호
金亨哲(보도) 010-8991-4218 02-2645-5970
양천구 신정2동 목동현대A 101-1902
金洪秀(관리) 010-8736-2920 031-923-7689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42, 1710-1805 (일산3동,후곡마을)
孫寬承(보도) 010-9105-1256 02-2654-0549
강서구 등촌로 163, 115-1702 (등촌동,현대아이파크)
申竣東(관리) 010-9199-5882 김포시 풍무동 유현마을 신동아A 108-1001
李錫熙(기술) 010-5276-5962 02-445-5960
서초구 태봉로2길 65, 403-1103 (우면동,서초네이처힐)
李裕浩(편제) 010-8981-0653 강북구 인수봉로23길 36, 5-201 (수유동,청화타운)
鄭鎬俊(기술) 010-9199-5780 061-762-5393 전남 광양시 봉강면 하조길 38
趙一秀(ANN) 010-9105-2123 02-3462-5209

강남구 논현로 205, 1동 107호

崔宇喆(편제) 010-8944-3174 02-555-9703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삼성래미안A 101-101

洪斗杓(관리) 010-8944-2140 032-563-2645

인천시 서구 검단로 832, 107-303 (불로동,퀵스타운신명A)

■ 평생회비 ■

이흥철(기술)9/8 홍두표(관리)9/23 정호준(기술)10/2
손관승(보도)10/19 신준동(관리)10/20 김형철(보도)10/26
崔宇喆(편제)10/26 조일수(ANN)10/29 김기화(관리)10/30

■ 연회비 ■

9월 : 김광백(12~16) 김광웅(13~15) 김은혜(13~15) 김철영(15) 노홍식(15)
문진영(15) 석종현(15) 신명현(15) 심상수(15) 오순심(15)
육수길(08~15) 이석희(15) 이유호(15) 이종수(13~17) 이처경(16~17)
황진욱(15)

10월 : 김귀현(15) 김종환(15) 김창섭(13~17,80세납부끝)
김학몽(01~21,80세납부끝) 박문식(15) 박병선(13~15)
박홍배(11~25,80세납부끝) 심규성(11~17) 양경운(14~15) 유무정(15)
윤건일(15~20,80세납부끝) 이근철(14~26,80세납부끝) 이종모(15)
임동훈(15) 장영배(12~16) 장효상(15) 지덕환(15) 차영숙(07~08)

전화/주소 변경

편제 : 강성호 063-561-5273 전북 고창군 성송면 양사로 118-56 (하교리)
김건영 인천시 서구 청라한울로 95, 311-2203 (경서동,제일풍경채A)
김학몽 010-8612-2389
이성호 마포구 대흥로2길 35, 102호 (용강동)
이영일 은평구 갈현로43길 11-9, B1 (갈현동)
보도 : 김휴선 010-3266-7868
윤홍섭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14-2001 (신봉동,신봉마을자이A)
이상아 031-922-6675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8-404 (일산,위브더제니스)
정철영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0, 502-1002 (서초동,우성아파트)
기술 : 김광곤 010-5474-5855
차종식 010-6261-4822
관리 : 류원종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577 현대힐스테이트 205-501
박순성 광진구 독성로56가길 28, 101-1401 (자양동,한솔리베르A)
안효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4-4, 301호
이세용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363번길 12, 205호 (윤중동,동양파크타운)
조승필 010-8991-4399
최창일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55, 104-1406 (풍덕천동,한성아파트)



MBC C&I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MBC C&I

회/원/동/정



문창환(기술)

前 삼척MBC 사장, 캄보디아 방송-통신 디지털전환 정책자문관으로 선정돼 12월 6일 프놈펜으로 떠난다. 1차 임기는 1년이지만 3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신승철(관리)

인천지역 소방 행정에 이바지한 공로로 11월 9일 (월) 53주년 '소방의 날'에 유정복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박한성(관리)

등산클럽 회장. 산악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10월 19일 (월) 세종 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산악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 때 공로패를 받았다.



구본홍(보도)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아시아투데이 창간 10주년 기념행사를 11월 11일 (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졌다.



김영일(보도)

11월 16일 (월) 방송통신위원회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7년까지 2년이다.

동/호/회/소/식

-인사동 클럽 (회장 장명호)은 3/4분기 모임을 9월14일 단타이핑 강남점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은 '싱글빙글 쇼'의 MC 강 석씨의 진행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 깊은 모임이 되었다.

장명호 회장은 '싱글빙글쇼'의 역사를 소개하고 1984년 라디오 제작1부장으로서 강 석씨를 MC로 발탁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강 석씨는 답사를 통해 PD들과 청취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싱글빙글 쇼' 방송 30년의 진행을 통해 수많은 세월동안 파도에 씻겨 하얀 조가비가 된 것 같이 맑아졌다고 말했다. 서규석 고문이 회원들의 건강과 강 석씨의 발전을 위한 건배를 제안했는데 건배酒는 30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발렌타인 30'으로 했다.

(글·총무 우종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창현(보도) 9월 30일 설악산으로 사진 촬영을 간다며 집을 떠나 소식이 끊긴뒤, 열흘이 지난 10월 11일 토왕성 폭포 바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향년 61세. 1981년 보도국 카메라기자로 입사해 14년간 근무하고 MBC프로덕션 영상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기준(기술) 10월 18일 전립선암으로 별세. 향년 81세. 1964년에 입사해 라디오 기술국장을 지낸 뒤, 방송문화원 교수로 활동했다. 1년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요양해 왔다.

여태성(편제) 11월1일 별세. 향년

71세. 2012년부터 치매가 급속히 악화돼 요양중이었다. 1970년 PD 2기로 입사해 TV편성부장, 편성국장, 편성이사 등을 지낸 뒤 MBC미술센터 사장을 역임했다.

이영환(관리) 11월6일 폐암으로 별세, 향년 68세. 1970년에 입사해 경리

부에서 근무하다가 1981년 언론 통제합 때 경향신문 경리부로 전보됐다.

강창우(기술) 11월 7일 (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별세. 향년 80세. 1968년에 MBC에 입사했으며, 기술국 관리부장과 부국장, 제주MBC 상무를 역임했다.

●회원 리포트●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그 뒷이야기



양영철(보도)

원-

“노사정 합의로 (근로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한 뒤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서 (해고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인제 의원-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전. “노동개혁에 관한 입법과제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여·야당에서 각각 노동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의 맞장토론이 지난 9월 하순 생방송으로 중계된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는 MBC를 비롯한 한국방송기자클럽(KBJC: Korea Broadcasting Journalists Club)의 6개 회원 방송사를 통해 한 시간 동안 전국에 생방송됐다. 토론이 진행된 세종문화회관 현장에는 여·야 국회의원, 취재기자, 방송기자클럽 회원 등 100여명이 숨소리를 죽이고 토론자들의 말 한마디 한

마디를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긴장된 분위기가 가득했다. BJC 초청토론회는 국내 주요 방송사가 합동으로 생중계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이다. 평소에는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출연하여 정부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장(場)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토론회를 개최한다. 선거철에는 후보들이 출연하여 선거공약 및 정책구상에 대해 홍보하고 상대방 공약의 허점(虛点)을 비판하는 등 격론을 벌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후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언론 노출에 신중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대표시절에는 BJC 토론회의 최다 출연자였다.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 역시 흥미있는 토론회가 기대된다.

BJC는 대선후보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방한하면 토론회에 초청할 계획이며 반 총장은 4년 전에도 BJC초청토론회에 출연하여 남북한 문제 등 지구촌의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BJC는 그때그때의 핫이슈나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부 정책 등을 엄선하여 주제를 확정된 뒤 이어서 토론자를 결정, 섭외한 후 6개 방송사와

방송날짜를 조율하여 토론회를 성사시킨다. 토론회에 초청하면 대부분 기꺼이 참여하여 열성적으로 토론에 임한다. 앞에 언급한 이인제, 추미애 의원도 치열하게 토론을 했으며, 연초에는 황우여 부총리가 토론회에 참여하여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작년 말 출연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발언을 통해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두 번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물론 TV토론회를 한 사코 기피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요즘 대선주자 중 정상급을 달리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홍용표 통일부장관 등이다. 방송기자클럽은 이 분들에게 여러 번 토론회 참석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올해 초 방송기자클럽은 여·야당 대표들로부터 그들의 정치철학과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두 당의 대표들에게 토론회 참석을 제의했다. 문재인 대표로부터

는 흔쾌히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방송날짜까지 확정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는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한다”였고 양당 대표의 토론은 무산됐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청해서 토론에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정치인들은 자신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부고(訃告) 외에는 어떤 소식 이든 자신에 관한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기를 바란다.’는 우스갯소리는 ‘정치인들은 언론에 자주 노출되어 자신의 활동상과 존재감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가는 정치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이 생방송 토론회에 자주 참여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하고 당당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V토론회를 통해 정치인과 국민들이 자주 소통하는 장면이 일상화(日常化)되는 사회. 이것이 참다운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 때 그 이야기●

김동엽, 그리고 이웅희, 김기주



최준식 (보도)

올 한국프로야구는 풍성한 뒷배기와 함께 두산베어스가 14년만에 우승을 차지하고 막을 내렸다. 그런데 올 가을잔치에 'LG트윈즈'가 보이지 않아 서운했다. LG트윈즈가 MBC청룡이던 시절, 취재기자로 구단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었을 뿐 아니라 선수들과도 친하게 지냈었다. 그런 때문인지 LG트윈즈로 팀 이름이 바뀐 뒤에도 늘 관심이 가고 정규시리즈 성적이 좋아서 가을잔치에라도 진출하게 되면 이번에는 우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했었다.

등번호 38번을 달고 '빨간 장갑의 마술사'라 불렸던 김동엽 씨는 'MBC청룡'에서 2대와 4대 두 차례 감독을 지냈는데 1997년 4월, 58세의 나이로 혼자 살던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감독과 취재기자로 만나 많은 날들을 같이 했던 추억이 아련하다.

1985년 6월 어느 날, 사장 비서실 박준하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보름 뒤에 'MBC청룡' 감독 교체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 후임 감독을 누구로 했으면 좋을지 생각해서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이었다. 보름이 지나고 사장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당시 'MBC청룡' 감독은 제3대 어우흥 씨였고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을 때였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MBC청룡 구단주인 이웅희 사장, 김기주 MBC 전무, 이 증 야구단 상무, 박 실장, 그리고 야구담당 기자인 필자 등이었다.

이웅희 사장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어우흥 감독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후임자로 누가 좋겠느냐?"고 물었다. 회의실은 일순 조용해졌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사장이 의중을 두고 있는 감독도 있을 수 있는데 누가 함부로 얘기를 꺼내겠는가? 침묵 속에 답답한 시간은 흘러가고 결론이 쉬 날 것 같지가 않았다. 이웅희 사장께서 "점심시간은 따로 없다. 결론이 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하겠다"며 비서들에게 도시락을 시키라고 지시했다. 회의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그러는 동안 청룡 코치인 Y씨와 H씨, 대학야구팀 감독 B씨, MBC라디오 해설자 K씨, 실업팀 감독인 또 다른 K씨 등 10여명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그러

나 이웅희 사장의 표정은 굳어진 채 풀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누군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김동엽 감독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꺼냈다.

그 순간 내 옆자리에 앉아 있던 김기주 전무가 급하게 메모를 보냈다. '배신자 김동엽은 절대 안돼. 네가 찬성하면 죽을 줄 알아!'라는 협박성 메모였다. 김기주 전무는 평소 김동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기주 전무와 이 증 상무는 1983년 MBC청룡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야구단 이사과 단장이었다. 이 해, MBC청룡은 후기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해 전기리그 우승팀인 해태 타이거스와 코리언시리즈에서 맞붙었다. 1차전이 열린 10월15일 광주 무등야구

나 3회쯤 하기룡이나 이길환으로 바뀔 것이다. 유종겸은 가짜 선발이다.'라고 수군거렸다. 유종겸은 3회 초에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맞고,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 무사 1,2루의 위기를 맞았다. 이때가 유종겸을 다른 투수로 바꿀 적절한 기회였다.

유종겸은 힘에 부치는 듯 자꾸 어깨를 추슬렀다. 그런데도 김 감독은 팔짱을 낀 채 나 몰라라 했다. 결국 해태가 2점을 뽑아 7회까지 5:1로 앞서 나갔다. 그러나 MBC청룡이 7회 말에 안타 2개와 실책을 묶어 3점을 따라 붙고 스코어가 5:4 한 점차로 좁혀지면서 승패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누구라도 유종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 감독은 8회에도 유종겸을 그대로 마운드에 올렸다. 유종겸

이웅희 사장 주변에 MBC청룡의 부진을 안타까워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MBC청룡이 강해야 MBC가 중계방송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야 한국야구가 활성화 되고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어우흥으로는 안 된다. 위기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감독은 김동엽 밖에 없다.'라며 이웅희 사장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 같았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지쳤는지 "사장님이 결단을 내리세요. 구단주가 감독을 바꾸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하고 거들었다. 김기주 전무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래도 되나?"라고 낮게 신음처럼 내뿜은 이 사장이 회의석 맨 끝에 앉아 있던 나를 뵈며 바라보셨다. 그리고 최후통첩을 하듯 말씀하셨다.

"최 기자! 우리가 김 감독을 다시 모셔 오면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김동엽으로 결정은 됐는데 이제 명분이 중요해진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잘못했다가는 이 사장과 김 전무 사이에서 처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빠르게 뇌리를 스쳤다. 김기주 전무를 다시 한 번 쳐다보았다. 눈을 감고 있었다. '말 잘해. 죽는 수가 있어!' 하는 것 같았다. 이 사장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참석자들은 모두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절체절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가 지워졌다. 1~2년 뒤면 회사를 떠나실 분이지만 현재 권력인 사장 편을 들어야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모셔왔고 또 앞으로도 오래 모셔야 될 전무 편을 들어야 살아남는 것인지? 머리가 복잡했다. 대답을 길게 끌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일생에 두번째로 용기를 냈다. "MBC를 잘 모르는 기자들은 'MBC는 배알도 없나?'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MBC를 잘 아는 기자들은 '고민 좀 했겠다'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김동엽 씨가 MBC청룡 제4대 감독으로 결정됐고 1983년 코리언시리즈 패배 이후 1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 다음 날, 방송과 신문들은 김동엽 감독의 청룡 복귀를 크게 보도했다.

김동엽과 이웅희, 김기주, 세 분은 모두 고인이 됐다. 김기주와 김동엽은 경북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세 분이 하늘나라에서 만났다면, 지금도 만나고 있다면 그 때 회의를 두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궁금하다.



故 김동엽 감독



故 김기주 전무



故 이웅희 사장

장, MBC청룡 김동엽 감독이 이광권을 선발로 내세우겠다던 팬들과의 약속을 깨고 투구폼이 흔들리고 컨디션도 좋지 않았던 오영일을 기용했다. 오영일은 5회까지 10안타를 얻어맞고 7점을 내주었다. 그런데도 김 감독은 투수를 교체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덕아웃에서 팀 관계자들과 잡담을 나누는 등 프로야구 수장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MBC청룡은 경기 전 예상을 깨고 4:7로 졌다. 1차전이 끝난 뒤 광주의 해태 팬들 사이에서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다. '전두환 정권이 광주사태(광주 민주화운동을 당시 그렇게 표현)로 사기가 떨어진 광주 시민들을 프로야구 우승으로 무마하려고 MBC청룡에게 저달라는 로비를 했다'는 등 MBC청룡의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두고 말이 많았다.

그런데 이튿날 잠실야구장에서 벌어진 2차전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잠실야구장에는 MBC청룡의 설욕전을 기대하며 3만 5천여 명의 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김동엽 감독은 이날 유종겸을 선발로 내세웠는데 팬들은 '2회

은 8회에 4안타를 맞고 4점을 내주게 되었다. 그는 연신 덕아웃을 바라보며 구원을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MBC청룡은 2차전을 4:8로 졌다. 1,2차전을 납득할 수 없게 해태에 내 준 MBC청룡은 결국 1983년 코리언시리즈에서 1승도 올리지 못하고 해태에 1무승부 4패로 졌다. 김동엽 감독은 코리언시리즈 1,2차전에서 왜 이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투수 운영을 했을까?

김기주 전무는 이때의 무기력한 패배를 두고 김동엽 감독을 'MBC를 팔아먹은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 감독이 다시는 MBC청룡 감독으로 와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걸 막는 게 자신의 임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누군가 김 감독을 거명한 것이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이 증 상무가 얘기를 꺼냈다. "사장님 그러시지 말고 사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그래야 해결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이웅희 사장이 입을 열었다. "김동엽 감독 어때요?" 야구를 좋아하는

“뮤지션에겐 은퇴란 없다.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



이 채 원(관리)

‘로버트 드니로’(벤 휘태커役)와 이름은 땀물아도 얼굴은 완전 친근한 ‘앤 해서웨이’(줄스 오스틴役)가 주연한 영화 ‘인턴’을 소개합니다.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벤자민 일등병> 등을 연출한 ‘낸시 마이어스’가 각본과 감독을 맡았습니다.

지난 9월 말, 개봉 한 달 만에 300만명이 넘게 관람했다고 합니다. 10월 첫 주말엔 대박을 예상한 ‘사도’보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더 많았답니다. 이어지는 열기에도 호기심이 일었지만, 직장에서 은퇴한지 한참 지난 70세 노인의 인턴 취업기가 더 궁금했습니다.

‘줄스’는 직원 수 200명이 넘는 IT쇼핑몰 회사의 창업사장이자 30세의 워킹맘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노인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지 못한 채 성장하여, 노인을 매우 싫어합니다. ‘벤’은 전화번호부 회사의 부사장에서 은퇴한 70세 남성으로 사회 환원 정책사업으로 도입한 ‘시니

어 인턴 프로그램’ 덕분에 ‘줄스’의 회사에 채용됩니다. 무료함에 지쳐가던 일흔 살의 ‘벤’은 40년 내내 입었던 정장 차림에 007 가방을 들고 출근합니다. 벤처기업의 젊은 사장 ‘줄스’와 20대 직원들은 모두 “헐~ 대박”이지요. 생소한 노인의 옷차림과 이를 보는 젊은 시선 사이에는 그들 나이 차이만큼의 간극이 벌어진 채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20대 젊은이들은 IT기업 직업인으로 담당 업무에 바쁘지만, 할아버지 ‘벤’은 특별히 하는 일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은 누구도 치울 생각을 않는, 사무실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잡동사니들을 혼자서 말끔하게 치워놓습니다. ‘줄스’와 모든 직원들의 “벤’을 보는 눈길들이 달라졌고, ‘줄스’는 어려운 상황에서 순발력을 확인하고는 ‘벤’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취소합니다. 그 무렵 ‘줄스’는 투자자들로부터 CEO를 영입해 경영권을 넘기라는 권고를 받고 고민에 빠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잘 나가는 아내를 위해 전업주부로 변신해서 자기와 아이에게 헌신하던 남편마저 바람이 납니다. 일벌레 ‘줄스’는 공황상태에 빠집니다. 급기야 인턴사원

‘벤’에게 솔직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벤’은 ‘줄스’가 갈등 상황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줄스’가 최종 결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도의 충고를 해주는 선에서 그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줄스’의 재능을 살려줄 것을 조용히 호소합니다. 이처럼 70살 인턴 ‘벤’의 지혜와 연륜에 힘입어 ‘인턴’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할배 인턴 ‘벤’은 40년간의 숙련된 조직관리 경험과 함께 70년 동안 풍파를 겪어온 인생의 달인입니다. 미숙한 어린 친구들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재빨리 간파하고 풀어 줄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묻어납니다. 그러나 런닝 타임 두 시간 동안 할배 ‘벤’은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왕년에 잘 나갈 때 쓰던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답시고 부박(浮薄)하지 않습니다. 인턴사원답게 젊은 직원들을 깎듯하게 대합니다. 상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노탐(老貪)을 누르고 지켜볼 뿐. 그렇지만 따뜻함과 온화한 미소 덕분에 직원들은 ‘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회사 직원이 다소 냉소적으로 묻습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매일 아침

손수건을 챙기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손수건을 안 가지고 다니지. 근데 자네, 손수건의 진짜 용도가 뭔지 아나?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거라네.”

얼마 후 ‘줄리’가 지난(至難)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에게 기대어 눈물을 흘릴 때 ‘벤’은 손수건을 건넵니다. 한 장의 손수건을 통해 70세 노인과 30세의 사장은 따뜻한 소통을 시작합니다. 할배 ‘벤’은 불편하고 어색한 노인에서 회사 내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본 이유가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은 곤궁한 처지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미래의 도전을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Hell조선’까지 외친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회는 많은 ‘벤 할배’를 갈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음악은 멈추지 않았습다. 선배님들, 모두 이 시대의 ‘벤’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새 겨울 손님이 문고리를 잡아당깁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내년 봄 ‘반로환동’(返老還童)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사우회 창립
25주년 기념

‘MBC에 물어 둔 이야기’를 발굴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MBC 재직 중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에피소드 등 <그 시절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겪은 얘기는 물론, 다른 사람의 일화도

좋습니다. 實名도 좋고, 이니셜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가슴에 묻어 둔 사연들을 꺼내서 회원들과 공유하시지 않겠습니까? 길이나 형식의 제한이 없으며 보내주신 이야기는 ‘MBC에 물어 둔

이야기’라는 제목을 달고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2016년 정기총회 때 회원 여러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사우회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사우회 또는 kimso460@gmail.com

Global Content & Platform Leader

iMBC

MBC 다시보기, 인터넷 라디오 ‘mini’, 영화, 연예스포츠뉴스, 참여형 모바일 플랫폼 ‘해요!’, 해외직구, 게임 등 iMBC는 시청자와 MBC가 만나는 디지털 접점에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조마을 귀촌 이야기



정 호 준(기술)

지난 달 9월 21일자 광양시민신문 179호 1면에 『봉강 하조마을 ‘환경복원 지표’ 반딧불이 서식』이란 제목의 기사가 내가 찍은 사진과 함께 1면 톱으로 실렸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내가 찍은 천체사진이나 동영상에 방송에 소개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신문에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이 발행되기 이틀 전 저녁 7시쯤 신문사 대표가 우리 산으로 찾아왔다. 반딧불을 보기 위해서다. 반딧불이는 해가 지고 주위가 컴컴해지면 나타나 약 1시간 가량 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즈음 대략 7시 반부터 8시 반까



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반딧불을 볼 수 있었기에 신문사 대표와 함께 약 2시간 가량 어두운 산속에 서서 두런두런 반딧불과 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것이 취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취재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레 말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취재 스타일인가 보다.

나는 30년 동안 다니던 MBC를 정년퇴직하고 올해 6월 말 광양 봉강면 하조마을로 귀촌했다. 정확히 말하면 귀촌이라기 보다 아내를 따라 온 것이다. 아내는 5년 전인 2010년 11월부터 하조마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고향이 충청남도 청양으로, 시골에서 나고 자랐고 시골을 좋아했다. 젊어서도 가끔 나이 들면 시골 가서 살자고 했을 정도다.

이야기는 10년여 정도 거슬러 올라간다. 대략 2003년 여름쯤으로 기억되는데, 그 몇 년 전부터 하조마을에 와서 살던 망동서가, 놀러 간 우리들(나머지 사위 3명)에게 “여기 몇 년 살아보니 아주 좋은데, 나중에 나이 들어 은퇴하면, 여기 모여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

때 별 생각들 안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형님.” 했던 것이 씨가 되어 올해 네 동서가 하조마을에 모두 모이게 된 셈이다. 막내동서네는 8년 전인 2007년에 내려와 “하조나라”를 일구었고, 올해 둘째사위인 나와 바로 아래 세째사위까지 합세하게 된 것이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정말로 그렇게 됐다. 사위들은 네 동서가 모였다고 하지만, 여자들은 네 자매가 모였다고 한다. 어찌면 그 표현이 맞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7~18년 전 애초에 하조마을에 집을 사자고 주장했던 것이 큰처형이기 때문이다. 큰 처형은 하조마을에 예쁜 집이 매물로 나왔으니 사자고 했고, 큰 동서는 반대했단다. 큰 처형은 지속적으로 즐겼고, 결국 큰 동서는 순천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에서 여자부 1등을 하면 허락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마라톤대회에서 큰 처형이 정말로 여자부 1등을 했던 것이다. 큰 처형은 뛰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숨이 차오를 때 “하조 하조 ~~”를 외치며 뛰었다. 일년

으로 원하면 이루어진다 했던가~. 큰 처형의 간절한 바람이 네 자매 뭉침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6월말일 서울에서 혼자 살던 단촐한 살림을 정리하고, 아내가 살고 있는 하조마을로 이사를 왔다. 아내는 나보다 먼저 5년 전 내려와 마을에 집을 사서 살고 있었고, 올해 초부터는



산에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집이 거의 완성돼가고 있었다. 10여년 전에 네 동서가 공동으로 사 놓았던 산이었다. 그 산에 드디어 집이 생긴 것이다. 지난 10여년 간 동서들과 처형, 처제들이 모이기만 하면 산에 무엇을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이야기하며 공론을

벌였었다. 모두의 의견을 서로 나누는 공론(公論)이었지만, 행위가 없는 그저 말뿐인 빌 공자 공론(空論)이기도 했다. 논쟁이라기 보다는 서로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기에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 그랬던 산에 드디어 집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나는 천문대를 만들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천체관측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음에 묻고 살아오다 13년 전 망원경을 사면서부터 취미활동으로 시작했었다. 그리고 퇴직하면 시골에 조그마한 개인 관측시설을 짓고 별을 보며 살고 싶었다. 또 마을 아이들에게 별을 보여주며 살고 싶었다. 그래서 완성돼가는 집 마당 한 켠에 작은 천문대 짓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짓고 있던 집이 거의 완성돼갈 무렵 아내가 천문대를 짓자고 했다. 나는 금전적인 걱정을 하며 머뭇거렸지만 아내는 제대로 짓자고 했다. 많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별을 보여주는 천문대를 짓자고 했다. 내 평생 희망사항을 이루어주고 싶단다. 그렇게 천문대 공사가 시작됐다. 짓던 집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천문대를 짓기 위한 토목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 동안 짓고 있었던 집이 잠을 잘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산을 10년 넘게 소유하고 있었지만, 산에서 밤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8월 초부터 몇 번인가 새 집에서 잠을 자게 되고, 어두워진 밤에 산에 있는 시간이 생기면서, 아내가 반딧불을 발견했다. “여보! 여기 반딧불이 있어~~!”. 반딧불은 사랑과 열

정의 곤충이라는데, 아내의 나에 대한 사랑에 감동해 하늘이 선물을 주신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청정지역에만 사는 곤충인데, 옛날엔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널린 개똥만큼이나 많다고 해서 개똥벌레라고도 불리었는데, 이젠 환경오염으로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곤충이다. 반딧불이는 고치에서 나오면 약 보름을 살면서 오직 짝짓기만을 한다고 한다. 입이 퇴화돼 거의 먹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사랑과 열정의 곤충이라고도 한다. 그런 반딧불이 우리집 주위에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여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하늘의 별과 함께 반딧불을 담고 싶었다. 빛 광, 별 양, “光陽”이라는 글자에 어울리는 사진을~~. 맑은 하늘에서 잘 보이는 별과, 맑은 물과 공기가 있어야 사는 반딧불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낸다면, 그 보다 광양을 잘 표현하는 것이 있을까~~~? 며칠을 애태우던 날씨가 개이고 별이 잘 보이던 밤, 새로 지은 집 뒷마당에서 북쪽 숲을 향해 셔터를 열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을 지인들에게 소개했고, 며칠 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딧불을 보러 찾아오셨다. 광양에 정말 반딧불이 있냐면서~~. 얼마 전 반딧불을 보러 무주에 갔었지만 몇 마리 밖에 보질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 다음날도 11명이 찾아오셨다. 바로 그 사진이 광양시민신문에 소개된 것이다. 아쉽게도 반딧불은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활동한다. 실제로 추석연휴를 마치고 와서 보니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았다.

천문대 건물도 형태를 드러내고, 둥근 형태의 천문돔도 설치됐다. 천문대 건물은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광양에도 천문대가 생기는 것이다. 하여 이름을 “광양 백운산 천문대”라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거창한 이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광양의 첫 천문대인 만큼 이런 이름을 써야 할 것 같다. 모쪼록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해가도록 애쓰고자 한다. 별을 보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삶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원로를 만나다●

사우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元老를 만나다>를 기획합니다. 편의상 분야별로 나누어 MBC와의 인연, 기억하고 있는 'MBC의 歴史'의 한 토막 등을 듣습니다. 다섯 번째 만난 분은 우윤근(업무) 고문님입니다. MBC 방송 광고와 사업부문의 礎石을 다지는데 기여하신 회고담을 들어봅니다.



우윤근 고문

-MBC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고향이 평안남도 양덕인데 고등학교 1학년(16세) 때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상이용사로 명예제대를 했어요. 신향민에, 상이용사에, 어린 나이에, 아무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1959년에 한국일보사에 입사했죠. 서울신문사에도 잠깐 있었고. 한국일보사에서 당시 세계적인 '아이스 쇼단'을 초청해서 공연하는데 내가 담당해서 크게 성공했어요. 업무과장으로 2년쯤 일하다가 1961년 9월에 이수홍 부장의 권유를 받아 MBC 업무과장으로 스카웃 돼서 개국 준비를 했어요.

-MBC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첫 상업방송이다 보니까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했는데 특히 광고요금 제도는 한시가 급했어요. 그래서 국내 일간지, 일본 일간지, 일본 방송, 미국 방송 등의 요금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국내 환경에 맞는 요금 제도를 만들었죠. 時級을 A부터 E까지 매기고 골든타임 광고는 특A급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 등등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도가 거기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초창기에 방송된 것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광고가 있으신가요?

삼진신약의 '카바마인'이라는 위장약을 광고하면서 CM song을 만들었지. 밴드마스터 송민영씨가 작곡하고 당시 열 대여섯살 된 윤복희가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만든 그 카피 내용은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상당히 인기 있었어요. 또 하나, 종근당에서 나온 빈혈치료제 '헤모그론'의 광고인데,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효과음 뒤에 '천리(千里)를 달리는 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헤모그론'이라는 카피에다 '종.근.당'이라는 멘트 뒤에 종소리를 울려서 광고주를 한층 부각시킨 기억이 나네요. 당시 부인들이 임신하면 으레 헤모그론을 찾을 정도로 광고효과가 좋았지. 그땐 MBC에 광고가 나가는 기업치고 성공하지 않은 회사가 없을 정도로 MBC 광고가 위력적이었어요.

-광고에 관한 연구랄까.. 그런 건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나요?

처음에야 당연히 외국 서적들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두어 달 동안 TBS, 텐츠광고, 萬年社, 다이코(大廣) 등 광고산업 현장을 돌면서 배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뭘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애썼어요. 광고주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를 자나깨나 고민했죠.

그래서 직접 카피도 쓰고, 씨엠송도 제작하고, 그게 또 히트하고...그러다 보니 덩으로 광고주들과의 인간관계도 좋아졌구요.

-개국 초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참이니까 어려운 건 당연한데, 특히 월급날이 되면 정말 등판에 땀이 배도록 뛰느라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임원회의에서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마치 내 탓인 듯 싶어서 돈 마련에 동분서주할 수 밖에요. 다행히 광고주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서 어음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지. 당시 양 아무개라는 사채업자에게 주로 어음 할인을 받았는데 그러다 어느날 화폐개혁이 된 거야. 어음 액수가 2.3억이 넘다보니 눈앞이 캄캄할 일이지. 그 분께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은 시켰지만 나도 내심 많이 불안했어요. 다행히 한 4.5개월 걸려 화폐개혁 환율에 맞춰 깨끗이 정리했지만 조마조마한 일이 많았어요.

-출연자 스카웃에도 관여하셨다고요?

그게, 회사 일은 곧 내 생존과 직결되니까 내 힘이 필요한 일에는 서슴없이 나설 수 밖에요. 한 예로, 동아방송에서 구봉서씨가 진행하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됩니다"라는 가십프로가 있었는데 그 시간대의 우리 프로그램이 죽으니까 광고주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인 영화배우 이대엽을 통해 구봉서씨를 만나자고 해서 셋이서 아스토리아 나이트에 가서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시고는 다음 날 오전에 다시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랑 전속하자. 얼마면 되니?'하니까 처음에는 꿈무늬를 빼던 구씨가 '5만 원 주면 가지'하는 거야. 당시 일류 성우들 출연료가 2~3백원 했으니 적은 돈이 아니지. '좋아, 약속이다' 그러고선 윗분에게 보고하니까 '뭐? 당신이

뒷감당을 책임 질거야?'하는데 슬그머니 화가 나서 '내가 책임 지겠소'하고 구씨를 데려오기로 했는데, 또 이러는 거야. '내가 송 해와 박시명을 동아로 끌었는데 나만 빠져나오기가 좀 그러네' 그래서 '그럼 그 분들도 데려와요'해가지고 월 만 오천원씩으로 두 사람을 받았어요. 그제 소문이 나서 양석천, 양 훈씨도 왔지. 그런데 어느날 구씨가 날 보자고 하더니 '동아에서 자기가 하던 프로의 PD가 짝리게 생겼다'는 거라. 청취율이 떨어지니 그럴 수밖에. 그래서 '그 PD도 데려오지 뭐'해서 온 분이 변현규PD였어요.

나중에 TV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가 대인기를 끌었으니 구봉서씨 스카웃은 본전 뽑은 셈 아닌가? 허허.



-보도 쪽과 얽혀서 힘들었던 일도 더러 있었다고요?

1976년에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미군 장교 두 명이 사망했는데, 이 사실을 국방부 출입기자가 기사를 보내와 속보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을 확대 보도해서 국익을 훼손했다' 뭐 이래서 기자가 보안사로 연행된 거야. 당시 보안사 참모장과 안면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뉴코리아CC로 골프를 치러 갔대. 나도 골프채를 갖고 그리로 가서 우연인 것처럼 김 장군에게 다가가서 '아니, 우리 방송국에 미운 털 박혔소? 뭘 그런 걸 가지고 기사를 데려가고 그래요?'하니까 '요즘 언론사들 혼 좀 나야 돼. 콧대들만 높아가지고 말야'하면서 좀체 오케이를 안 해. 작심하고 골프 끝난 뒤 술자리로 데려가서 온갖 설득 끝에 다음 날 기사가 나오게 된 일이 있었지. 그런가 하면 보도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출근하니까 삼양식품 전 사장이 화를 내면서 '좀 보자'고 하는 거야. 가서 만났더니 '과월장병들이 국내보다 비싼 값으로 월남에서 라면을 사먹는다'는 보도를 우리가 했다는 거지. 그런데 속사정을 듣고 보니 이런 얘기가. 월남은 무더운 날씨라서 자칫 음식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기름에 두 번 튀기는 라면을 세 번 튀기

고, 포장도 진공으로 하고 박스에 넣을 때도 받침대를 사용하고 등등 이렇게 되니 원가가 국내용 라면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막은 제쳐두고 무조건 비싸다고 보도를 했으니 전 사장이 화가 난거지. '여보,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들 원가가 비싸게 먹히는 월남 수출을 하고 싶겠소? 안 그렇소' 이러면서 한 시간 가량 전 사장에게 곤욕을 치른 뒤 회사로 돌아와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보고했지. '앞으로 삼양에서 광고 안 줘도 제 탓이 아니니까 저는 책임 안 집니다'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나? 가만, 보도국장 좀 오라고 그래'하고 인터폰을 하는 거야. 잠시 후 보도국장에게 '이제부터 우리 회사 스폰서가 관계된 기사 있으면 먼저 우 상무에게 상의하도록 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구.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해도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거침없이 항의하고 받을 때는 스폰서들이라서, 그런 식의 사고가 터질 때마다 달려가서 곤욕을 치르는 일은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1969년도에 한국연합광고(주)를 주도적으로 만드셨죠?

주도적이라기 보다 당시 업무국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었지. TBC가 제일기획이라는 광고대행사를 먼저 만들었는데, MBC도 지방 네트워크 형성되니까 광고도 광고지만 지방 네트워크를 키우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업과 네트워크 관리,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지. 그러다가 1974년에 경향신문과 통합하면서 MBC에드컴으로 이름을 바꿨고, 1978년에 에드컴 사장으로 갔었는데 그게 MBC에서 내 마지막 직장이 됐대구. 80년도인데 사실 난 그땐 언론인이 아니니까 이른바 숙정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이진희씨가 일괄사표를 내라고 하니 어떡해요, 무조건 낸거지 뭐.

-광고유치 업무 이외에 큰 사업도 여러 번 하셨네요?

그럼요. 파바로티 초청 공연도 하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망명한 피아니스트 에쉬케나지 블라디미르 초청 공연도 하고 또 일본 중앙대학 아마권투선수들을 불러 우리나라 선수들과 시합을 벌여 그걸 중계방송도 하고 했지요. 그 때 장충체육관 수용인원이 8천명인데 만이천명이나 입장하는 대성황을 이뤘어요.

-스포츠라면 김기수선수와 인연을 빼놓을 수 없으시죠?

그렇죠. 김 선수도 실향민으로, 다섯 살 아래인데 어쩐지 친 동생 같은 정이 느껴져서 참 각별하게 친했어요. 아마에서 프로로 전향할 때 '아, 이 친구는 확실히 뜨겠구나'하는 감이 생겨서 그를 뒷바라지하게 됐는데, 한국 최초의 세계챔피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구. 근데 당시 챔피언 벤베누티와의 대전료가 어마어마한 금액인 오만오천불인 거라. 물론 MBC에는 그만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 상태인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국회의교위원장 C씨와 청와대 경호실 P씨를 찾아가 절반 정도의 돈을 도움받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서 무사히 시합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최초의 세계챔피언이 탄생했고 MBC의 독점중계로 시청률 100%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었지. 가족 간에도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암으로 가고 나니까 마치 오른 팔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허전함 때문에 한동안 마음을 앓았었지.

-김 일선수와도 각별했었죠?

김 일선수와 일본의 이노끼, 자이안트 바바가 참여하는 레슬링 경기를 기획해서 지방순회도 하고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레슬링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날 사장님을 청와대로 불러서 '김 일선수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야. 그래 김 일후원회를 만들어 내가 이사장을 맡고, 문화체육관을 짓고, 말하자면 프로레슬링 경기

의 활성화를 MBC가 했던 거지. 나중에 '김 일 도장'을 차림으로써 MBC와의 인연은 끝났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무하마드 알리 MBC 방문〉

-1972년 12월 2일 시민회 관 화재로 고생 많으셨죠?

아유, 그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야. MBC 개국 11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날인데 그 날 집에 김장한다고 해서 아내를 도와줄 셈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5학년인 두 아들을 데리고 시민회관에 갔었어요.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데려오길 잘 했다'고 생각했드랬죠. 난 무슨 행사든 다 끝난 뒤 마무리까지 지켜본 뒤에야 자리를 뜨는 버릇이 있어서 그 날도 끝까지 남아 있다가 10대 가수 청백전 공연이 끝나고 화장실에 잠깐 들렀는데 어디서 '불이야'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복도로 나와 보니까 불길이 이미 여기저기 번져서 연기를 토해내고 미처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우왕좌왕 난리가 난 거야. 급한 마음에 맨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큰 아이를 창틀에 올려주고 뛰어내리게 했는데 불길이 한층 거세지는 거야. 급한 마

음에 작은 아이는 창밖으로 그냥 던져 버렸어요. 2층이었지만 거의 3층 높이로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지만 오로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불길은 더욱 거세지는데 탈출구는 안보이고, 그러다가 저쪽 복도 끝에 창문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어요. 머리칼도 타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속에서 간신히 몸 하나 빠져나갈 만큼 구멍을 뚫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는데 그만 창틀에 발목이 걸려버렸어요. 죽을힘을 다 해 몸부림을 쳐 땅바닥에 떨어지려는 상황이 어두운 가운데 아이들 찾느라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을 간신히 찾아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고려병원으로 달렸죠. 작은 아이의 왼쪽 눈어귀에 상처가 나고 팔목이 골절됐고, 난 유리에 찔려 손바닥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오른쪽 발뒤꿈치가 나가서 나중에 아킬레스건 봉합수술에다 허벅지살을 발뒤꿈치에 이식하기도 했어요. 그때 다친 허리가 지금도 자주 아프곤 하지만 그 날 50여명이 사망했으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

-재직 중에 몇 분의 사장님들을 모셨나요? 특히 기억나는 사 장님은요?

모두 다섯 분. 김지태, 고원중, 황용주, 조중출, 이환의 사장님들인데 한 분 한 분마다 애깃거리가 있죠. 그 중에서도 황용주 사장님은 부모와 같은 존재로 내 맘에 자리하고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자리에선가

'우윤근이는 내 자식과 진배없어. 아들이 있었어도 개만큼 잘 하진 못했을 거야'하셨다는데, 마음만 앞섰지 정작 자식노릇을 제대로 못한 나를 자식으로 여겨주신 그 마음에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구.

20여년 MBC에서 일하는 동안에 이환의 사장님과 함께 했던 10여년은 특히 내가 마음껏 활개를 펼 수 있었던 황금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1974년 경향신문을 인수할 당시에, 짧은 시간 내에 경향신문의 상태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극비리에 인선작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인수할 당시 12만부 찍던 경향신문을 20만부 인쇄에 수입이 1억을 넘길 정도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이환의 사장님이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후기〉일 잘 하기로 소문났던 우고문께서 MBC를 퇴직하자 기다렸다는 듯 보험사, 골프장, 광고회사 등에서 연달아 대표이사로 초빙하는 바람에 이후 15년 넘게 사업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업무 이외에도 이북7도연합회장, 북한이탈주민후원회장, 평안남도 중앙 도민회장, 평안남도장학회 이사장 등 신향민들을 위한 활동과 사회공헌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우윤근 고문님의 老益壯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담.정리: 편집장

Total system redundancy No single point of failure.

VISTATM



Vistonic



FaderGlowTM



INFINITYSERIESTM





Loudness
metering



Finally, metering
that makes sense

VISTA FX
Reverb and effects

<http://www.idyd.kr>

동양 디지털

DONGYANG DIGITAL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새로운 기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1106호 전화 02)705-1332~3 팩스 02)705-1334

STUDER

by HARMAN